**시보쿠사센겐 신사**

오시노무라(마을)의 시보쿠사에 있는 센겐 신사는 807년에 건립되어 1186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. 1193년에는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로부터 북쪽의 도리이치 고개까지에 이르는 토지를 신사의 영지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. 19세기에는 이 신사의 신자들에 의해 오시노 핫카이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현재도 이 신사는 오시노 핫카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.

이 신사의 경내에는 수많은 주목나무 고목이 우거져 있습니다. 이들 나무의 바깥 둘레는 1.4~3.7m로 이만큼 거대한 나무가 한 곳에 군생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.

**삼신상**

이 신사의 보물로 1315년에 만들어졌다고 여겨지는 3개의 목상이 있는데, 그 중 하나인 여신상은 센겐 신사에 모셔지는 여신 고노하나사쿠야히메의 상이라고 전해집니다. 그러나 일설에 따르면 헤이안 시대(794~1185)에 쓰여진 이야기인 다케토리 모노가타리(대나무꾼 이야기)에 나오는 가구야히메와 가구야히메에게 구애하는 2명의 구혼자를 표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. 가구야히메는 항상 구혼자가 끊이지 않았던 절세 미녀로 이 구혼자 중에는 완전히 가구야히메의 노예가 되어버린 황제도 있었습니다. 이 구혼자들을 모두 거부한 가구야히메는 결국 황제에게 불사의 약만을 남기고 고향인 달로 돌아가 버립니다. 슬퍼하던 황제는 이 약을 후지산 정상에서 태워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. 후지산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이기 때문입니다. 이 전설에 따르면 후지산의 ‘후지’는 일본어 ‘후시(不死)’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.